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용인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대학일반부	국 적	내국인
공모분야	시나리오	세부분야	연극

출품자 프로필			
성 명	이가현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성 명	이세진	소속(학교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토리텔링 창작물 개요	
제 목	처인성의 화요일
주 제	용인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마을에 대한 애착
주요내용	<p>연극 <처인성의 화요일>은 처인성 전투를 전후로 한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 다룬다. 우리는 이 연극을 통해 용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과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살리고자 한다.</p> <p>처인성 자리에 장터와 주막이 있었다고 가정한다. 처인성 자리에 부곡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 농부, 주모, 고아, 지주, 승려, 양반으로 계급과 출신이 다양하다. 모두 조금씩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각자 다른 이유로 처인 땅에 살고 있다.</p> <p>그러던 중 몽고 군이 쳐들어온다.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지만 위기를 겪으며 단결하게 된다. 이들의 희생과 용기를 통해 자신이 처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된다.</p> <p>연극 <처인성의 화요일> 은 용인의 대내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용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것이다. 그리고 휴머니즘적 요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p>

2010 처인성 스토리텔링 공모전 <처인성의 화요일>



목차

1. 기획의도

- 1) 용인의 현재 대외 이미지
- 2) 용인의 현재 대내 이미지
 - 3) 용인의 균형 발전

2. 연극적 처방

- 1) 공동체 정신의 부활
- 2) 삶의 터전으로서 땅에 대한 애착
 - 3) 휴머니즘의 강조

3. 지역 관광지와 특산물 홍보 효과

4. 연극의 소재 선정 배경

5. 배경 및 인물 설명

공모분야	시나리오_연극
출품자	이세진,이가현
작품명	처인성의 화요일

기획 의도

‘용인시의 이미지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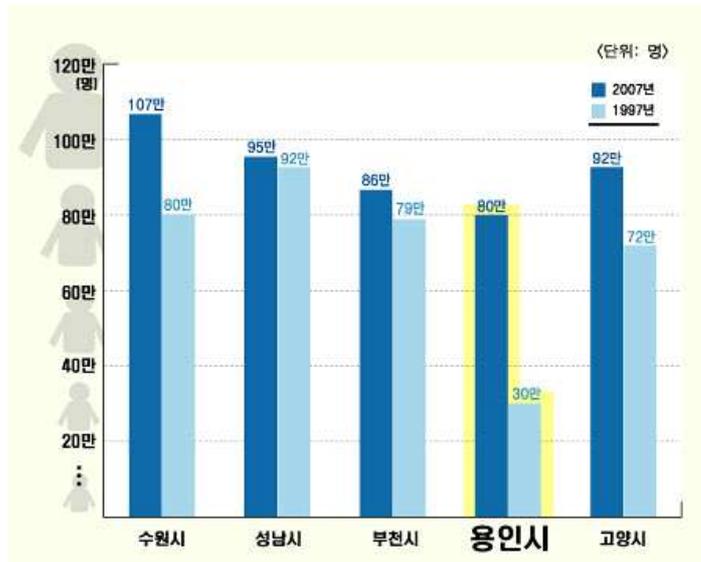
용인의 현재 대외이미지

‘용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용인 불패’로 상징되는 부동산 투기 도시이다. 용인의 부동산 투기는 강남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80년대부터 강남권의 개발로 인해 서울 강남권에는 급속한 인구증가가 있었고 이윽고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분당 다음으로 접근성이 좋은 용인이 개발지로 주목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용인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용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용인시민들의 의도가 아니라 외부의 의도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이 볼 때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

-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극

우리는 연극을 통해 용인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한다. 용인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것은 용인 지역에 아직도 부동산 투기가 활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대체할 이미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극을 통해 용인의 구체적인

대외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다. 용인 지역의 역사를 이용하고, 유적, 특산물을 소개하여 용인 지역에 **무엇 (what)**이 있는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연극을 접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다채로운 용인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출처 : 용인 인터넷신문



현재 용인의 대내이미지

또한 용인은 ‘베드타운(Bed Town)’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인구 37만에서 10년 만에 90만 명으로 늘어날 만큼 매년 도시 하나 규모의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된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와 국도는 포화 상태이며, 학교와 문화 체육시설이 아주 부족하다.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다.

- 대내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극

우리는 연극을 통해 용인의 이러한 대내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한다. 용인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how)** 살았고, 또 살고 있나 알려야 한다. 이렇게 용인의 역상에 의미를 부여하면 급속히 유입된 인구들에게 또 다른 용인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극은 과거의 역사를 이용하여 용인의 현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꿈꾸게 할 것이다.

용인의 균형 발전

용인의 지역 신문 ‘굿모닝 용인’의 기사를 참고하면 용인 거주 주민들은 구별로 각각 다른 모습의 지역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용인시는 역시 지역발전 전략에서 ‘따로 또 같이’라는 방향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농촌권역이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처인구민의 경우, 용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장 중요한 현안(55.4%)이라고 밝힌 반면, 기흥구와 수지구민은 각각 18.7%와 19.5%만이 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권역 주민들은 균형발전보단 교통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 현안 - 구(區)별 결과

(단위 : %)

구 분	지역경제활성화	균형있는발전	교통문제해결	교육및문화 인프라확충	복지와환경문제	기 타
기흥구	11.6	18.7	27.2	18.7	18.2	5.5
수지구	10.8	19.5	30.3	19.7	15.9	3.8
처인구	10.0	55.4	15.0	2.7	11.5	5.4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성별에 따른 현안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설문 응답자 중 22.9%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변한 반면 남성들은 6.7%만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복지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현안으로 꼽은 시민은 10.9%를 차지한 반면 복지 및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은 15.7%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환경이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주요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된다.

(2010.4.2. 굿모닝 용인)

연극은 용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처인구를 알릴 것이다. 용인시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처인구와 관련된 소재인 처인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인 처인구의 특징도 반영할 것이다. 도농 격차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번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특산물인 포곡오이, 백옥쌀, 백암순대, 옥로주 등을 많이 홍보할 것이다.

연극적 처방 (차별화 전략)

1) 공동체 정신의 부활

요즘 대도시, 특히 신도시 지역에 가장 부족한 것이 공동체 정신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향약, 두레, 품앗이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공동체 정신은 자신의 가족과 남을 구분 짓지 않고 마을 사람 전체를 한 식구로 보았다. 그러한 덕분에 이웃 간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싹텄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란 개념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는 동창회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자신들은 외롭다고 믿어 자꾸만 고독을 느낀다.

그러므로 연극 <처인성의 화요일>이 지향하는 것은 우선 공동체 정신의 부활이다. 가족이란 개념 대신에 이웃 간의 화합을 강조하여 ‘우리’라는 개념을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안식처를 제공하고 현재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주는 것이다.

2) 삶의 터전으로서 땅에 대한 애착

사람들이 용인을 쉽게 떠나가는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용인 지역의 부동산을 여전히 투기 대상으로 보고 있고, 용인이 큰 도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타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극 <처인성의 화요일>은 사람들에게 용인 지역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어야 한다. 땅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 볼 수 있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 미래를 꿈꾸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처인 지역, 나아가서는 용인 지역에 대해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은 현재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휴머니즘의 강조

연극 <처인성의 화요일>에서는 특히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이 연극을 보고 난 후에 관객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선이 승리하는 이야기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용인 지역에 적합한 소재이다. 연극 <처인성의

왕과 최 씨 무신 정권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남쪽으로 개경(開京)을 거쳐 한양산성을 무너뜨렸다.

몽고군은 결국 처인 부곡(處仁部曲)의 처인성에 이르렀다. 그러자 부곡민들이 자발적으로 몽고 군대에 맞서 싸웠는데, 이 때 백현원의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가 이 성에서 부곡민들을 한데 모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다만 역사적으로 김윤후가 직접 살리타를 사살하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처인성 북쪽 들판은 지금도 승장 김윤후가 적장을 사살하였다 하여 사장(射場)터로 불린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으로 왕으로부터 상장군직을 제수 받았으나 사양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의 승리는 나라 전체의 대몽항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전투의 승리로 몽고 군대의 남하가 지연되었고, 처인 부곡은 나중에 부곡에서 현으로 승격되었다. 학자들은 결국 끊임없는 항쟁으로 인해 고려가 몽고의 속국이 아니라 조공국이 되는 선에서 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한다.

배경 및 인물 설명

배경

시골 장터, 지금의 처인성 자리, 처인 부곡 마을

인물 설명

어린이 1, 2



놀 곳이 마땅치 않아 늘 장터에서 놀곤 한다. 혼이 나도 금방 다시 놀이에 열중하고, 놀들이 함께 붙어있다. 순수한 동심과 새로운 세대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주모

등장인물 모두를 잇는 역할과 해학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보통 '주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대로이다. 활달하고 말이 많으며 행동이 거칠다. 그러나 속마음이 따뜻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인물 모두를 두루 챙기는 정이 있는 인물이다. 민중의 당당함과 씩씩함을 상징한다.



처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아버지는 부역에 나가 돌아오지 않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날 무렵부터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일가친척 없는 외로운 인물이다.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다시 처인 부곡으로 돌아와 지금은 주막에서 주모를 도와 일하고 있다. 처인 땅에 대한 애착을 상징한다.

총각

부잣집 도련님, 주막 처녀를 사랑하나 신분의 차이로 인한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격한 반대와 주변의 소문, 눈초리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한다. 젊은 그에게 이 마을은 매일의 일상이 똑같은, 지루한 곳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작은 이 마을을 떠나 개경으로 가고 싶어 한다. 서울로 가고 싶은 젊은 세대, 일 할 수 있는 세대의 욕망을 상징한다.



농부들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쟁에 참가한다. 사람들 사이의 소문을 발 빠르게 접하고 전하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마을의 일꾼들이다. 부곡민들이 갖고 있던 가장 혼한 직업이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속에 늘 존재했던 이름 없는 민초들의 강인함을 표현한다. 농부 1은 소시민이며 농부 2는 다혈질이고 농부 3은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이 많다.



김윤후

부곡 근처 암자의 승려이다.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나 글만 읽는 서생 같은 외모이다. 실제로도 매우 소심한 성격을 지녔다. 출가 전 꽤 이름난 무신 집안의 막내아들이었으나 병약한 탓에 부모의 권유로 결국 출가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걸돈다. 그러나 몽고의 침입과 시인의 죽음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아 공동체를 위해 무기를 든다. 책임감 있는 상위 계층을 상징한다.

할아버지

돈 모으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다지 친분 쌓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잔소리와 엄격한 표정에 아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기 일쑤이다. 자신을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살았지만 전쟁을 계기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여 사회 갈등을 완화시킨다. 지주 계급과 노년층을 대표한다.



시인

양반 계급이지만 놀고먹는 한량에 더 가깝다. 시를 읊는다고 하루 종일 마을 바위 권에 앉아있지만 사실 물골이 웃기기만 하다. 전쟁이 났을 때도 태평하게 성벽에 걸터앉아 시 쓰고 노닥거리다가 결국 몽고군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만다. 김윤후에게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인 동시에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을 상징한다.

관료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약간은 고집이 센 인물이다. 조정의 명령을 충실히 따른다.

시놉시스

제1막

제1장 장터



장터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다. 장터는 지금의 처인성 자리이다. 아이들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온 장터를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금방 지루해져 다른 놀이를 찾는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파전을 얻어먹는다.

제2장 주막



행상에서는 농부들이 술을 마시며 (옥로주) 농사의 고단함을 이야기한다. 주모가 농부들의 대화에 끼어든다. 그 때 김윤후가 주막으로 들어선다. 주모는 행색이 남루한 김윤후를 훑어보고는 천대한다. 김윤후는 술 취한 농부들과 자꾸 몸이 부딪히지만 소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부엌에서 일하던 처녀가 손님들에게 줄 순대(백암순대)와 술을 가져온다.

제3장 총각과 처녀의 만남



20대 총각이 주막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농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총각은 우연히 장터를 지나다가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총각의 부모인 김 영감이 소문을 전해 듣자 총각에게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총각은 상사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가 이제 일어난 것이다.

처녀가 총각에게 다가오자 총각은 부곡리를 떠나자고 처녀에게 말한다. 그러나 처녀는 거절한다.

주모는 처녀를 데리고 뒤뜰로 가 왜 도련님을 따라가지 않는지 묻는다. 처녀는 부곡리의 장소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한다.

제2막

제1장 김윤후의 등장



김윤후의 불쌍해 보이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처녀가 썰고 있던 오이 몇 개를 바가지에 넣어준다. 김윤후는 음식을 탁발 바가지에 챙겨 넣고 주막을 나선다. 졸다가 깡 시인이 김윤후에게 말을 건다. 김윤후는 시인에게 오이를 나눠주고 시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가보인 화살을 김윤후에게 준다.

이 때 몽고 군인 열 명 정도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 길가에 서 있던 김윤후, 결국 넘어지고 바가지를 깨뜨린다.

제2장 김윤후의 과거 회상

방 밖 마당에서는 검술을 연습하는 형들의 커다란 기합 소리와 아버지의 훈수 두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온다.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와 형들처럼 목검을 들고 연습을 하려 하지만 심술궂은 작은형의 공격 한 방에 그만 쓰러진다. 방으로 들어가서 푹푹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제3막

제1장 주막이 불타다

관료는 장터에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한다. 이 때 몽고 군대가 쏘는 불화살이 마을로 날아온다. 주막이 타는 걸 보면서 주모와 처녀가 울음을 터트린다.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물을 퍼와서 불을 끈다.

제2장 시인의 죽음과 김윤후의 변화

시인이 성곽에 걸터앉아 시를 읊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시인을 보고 주변으로 몰려가 시비를 건다. 순간 날아온 화살이 시인에게 가서 박힌다. 김윤후는 시인을 끌어안고 오열하며 자신의 소심함을 반성한다. 김윤후는 맞서 싸우자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다.

그러자 주모가 큰 소리로 사내대장부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나무란다. 총각은 처녀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두 손을 잡고 고백을 한다. 농부들도 싸우기로 결심을 한다. 지주인 할아버지가 잔뜩 자루에 무기며 농기구를 담아가지고 온다.

제3장 전쟁

우선 농부들이 씩씩하게 진장으로 나간다. 그러나 몽고 군대가 쏘는 별떼 같은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다. 하나씩 쓰러진다. 결국 총각까지 쓰러진다. 처녀가 오열한다. 이제 살아남은 것은 김윤후와 주모, 처녀, 아이들, 다른 사람들뿐이다.

제4장 김윤후와 활약



김윤후가 우두머리 살리타이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 몽고 군대가 혼비백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다른 농부들이 열심히 화살을 더 쏜다. 결국 선봉장을 잃은 몽고 군 퇴각하기 시작한다. 전쟁은 처인부곡민들의 승리로 끝난다.

제4막

제1장 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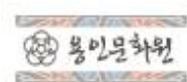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관료가 어명을 가지고 와 김윤후의 공을 치하한다. 그리고 상장군으로 임명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김윤후는 이를 공손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제2장 새로운 출발

이제 처인 부곡에 남은 사람들은 주모와 처녀와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처녀는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들의 희생과 자신의 추억과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부곡리를 영원히 지키고 가꾸겠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처음처럼 다시 놀이를 한다. 힘이 없던 목소리가 놀이를 하면서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서 막이 내린다.



제1막

제1장 장터

장터

장터에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다. (장터는 지금의 처인성 자리) 무대 한 가운데 있는 주막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양 옆으로 상인들이 채소를 팔고 있다.

상인 1

(큰 소리로) 배추 사세요! 여기 물 좋은 배추가 있어요!

상인 2

(더 큰 소리로) 상추 사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상추 있어요.

할아버지

어디 보자. (상추를 들었다 내리며) 상추 얼마요?

상인 2

그거는 두 냥, 요거는 한 냥. 할아버님 많이 사시면 내 혈값에 드리지요. 더 사요, 더 사

할아버지

(상인 2를 등지고 지팡이를 짚는다) 뭐가 이렇게 비싸. 안사요 안사.

상인 1

(상인 2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 보게, 지금은 딱 배추를 먹어야 심신이 건강해지지 상추는 무슨! 배추 사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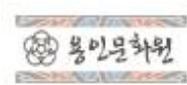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상인 2

에이그 자네는 지금 먹는 향긋한 상추 곁절이도 못 먹어봤는가, 하긴 자네가 뭐 맛을 알겠느냐 말이야.

상인 1

뭐? 이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기에 허튼 소리를 하실까?

(상인1, 2 옥신각신한다.)



주막과 가판대 사이 자투리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7살 남짓한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이다.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

남자아이

수지야, (두리번거리며) 도대체 어딴거야? 못.찾.겠.다 ! 진짜로. 나와라.

여자아이

(가판대 밑에 숨어서 고개만 내밀고 물끄러미 본다.)

남자아이

못 찾겠어. (노래를 부르며) 못 찾겠다 피꼬리, 깨꿈발 짓고 나온나

여자아이

(깨꿈발을 짓고 나오며 혀를 내민다.) 졌지? 너 또 술래다.

남자아이

(한숨을 쉬며) 자꾸 나만 술래 하니까 재미없어. 우리 딴 거 하자.

여자아이

만날 자기가 지니까 딴 거 하재. 알았다 알았어. 딴 데 가서 놀까? (두리번거리며) 어디 가서 놀지?

남자아이

안 돼. 엄마가 멀리가지 말랬단 말이야. 배추 가판 여기에 있으랬어. 우리 엄마 곧 올 거야

여자아이

알았어. 겁쟁이야. 우리 아빠도 곧 올 거야. 딴 거하고 놀자

남자아이

(돌멩이를 집으며) 야! 여기, 여기, 여기!

여자아이

아니야, 쫓만 더 멀리 놔야 돼. 그래야 멀리 뛰어도 안 넘어가.

남자아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종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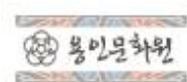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여자아이

싫어. 나는 여기 할 거야.

아이들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면서 온 장터를 뛰어다닌다. 배가 고파진 아이들이 장터 주막 근처를 서성인다.

여자아이

우와, 맛있겠다!



남자아이

응. 근데 할머니가 주막 안에는 들어가지 마랬어.

여자아이

우리 엄마도. 근데 아빠는 만날 주막 간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막 뭐라고 했었다?

남자아이

맞아. (손으로 코를 막으며) 아우, 술 냄새.

아이들이 주막 근처를 서성거리자 아가씨가 나타나서 한 소리 한다.

아가씨

어이고 애들아 아줌마 보면 또 혼난다. (주모가 있는 쪽을 살핀다.) 딴 데 가서 놀아.

아이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얼쩡거린다.

아가씨

(난처해하며 파전을 떼어준다.) 이거 먹고 얼른 가, 알았지?

여자아이

(방긋 웃으며) 우와, 신난다. 고맙습니다.

남자아이

나도, 나도!

여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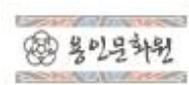
알았어. 나눠 먹자. 기다려봐.(파전을 반으로 갈라 남자아이에게 준다.)

제2장 주막

주모가 등장한다. 주모는 시끄럽다며 아이들을 나무라고는 쫓아낸다.

주모

아이고, 요것들이 아주 여기에 사네그려. 이걸 또 어디서 좃어먹었냐잉, 담번엔 니네들



엄마 불러야 쓰졌네. 왔던 손님도 나가겠네. 싸게 절로 가그라!

아이들

(주모를 신경 쓰지 않고 땅따먹기 놀이를 한다.) 일이,삼,사오!

주모

어여, 가라니깐! (아이들에게 뛰어온다.)

남자아이

가자가자. 아줌마 무섭단 말이야.

여자아이

알았어. 아이, 참!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돌맹이를 손에 쥐고 주막을 나선다.)

몇 발자국 못 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재잘재잘 떠든다. 금방 자투리땅을 찾아 또 땅 따먹기 놀이를 한다. 할아버지가 주막으로 등장한다.

할아버지

(힘없는 목소리로) 주모 여기 밥 좀 줘. 밥 좀 줘. 이 늙은이가 밥심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살꼬. (배를 움켜잡고) 아, 빨리 밥 좀 줘.

주모

알았어유. 알았어. 이 영감님 왜 이리 급하실까.(부엌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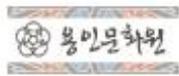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행상에서는 농부 둘이 술을 사발로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옥로주)

농부 1

올 농사는 풍년이라 다행이여. 왜 저번에 물난리 나서 죄다 쓸어간 게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혀.

(농부 2에게 술을 부어준다. 술은 옥로주이다.)

농부 2



(술을 마시며) 풍년이면 뭐 하는가. (한숨을 쉰다.) 농사 겨우 지어놨더니 어째 그 모양인지 몰러. 저기 정씨네가 또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으니 이거 농사를 지으라는 건지, 참 나. 그 집 좋은 일시키고 말았수다.

농부 1

내 말이 그거유. 내는 올해 쌀밥 좀 먹어보나 했더니 정씨가 와서 흑 가져가데. 집에 쌀을 천석이나 쌓아놓고 다 뭐해 쓰려는지. 우리 같이 없는 땅꾼들을 꼭 박박 긁어야 쓰겠는가.

주모

(마당에서 오이를 깎으면서) 농사만 그런데요. 접 때 우리 집 와서 술 처먹고 쌀 한 되 주면서 어찌나 생색내당가. 어이고야, “그깟 쌀 됐수다.”하고 싶은 소리가 혀끝까지 나오데.

농부 1

(술을 마시며) 마누라는 집에서 바가지 긁지, 정씨는 그렇게 가져가지 아이고. 내 술 안 먹고 배기겠냐 말이요. 자 한 잔씩들 해. 주모도 한 잔 하고 가시우.

농부 2

제수씨 구박은 구박도 아니여. 어이고 나는 자식새끼 배고프다고 울어 제껴 마누라 큰 눈 치켜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술이나 먹어야 살지. 옥로주가 없으면 무신 재미로 살겠어.(술을 마신다)

주모

(조롱하는 눈빛으로) 아니, 이 양반들이 집에 돈은 없다며 술은 우째 먹는데? 마누라 무서운 줄 모르고 이리 술 먹어도 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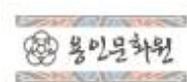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농부 1

(소리를 치며) 마누라 구실을 똑바로 해야 마누라지!

주모

(삿대질을 하며) 아따 남자 구실이나 똑바로 하는겨? 보아하니 밤에 남자구실도 옹게 못하겠구만 호호호.

할아버지가 눈을 찡그리며 주모를 쳐다본다.



농부 2

(삿대질을 하며) 아니 이 사람이 장사하기 싫은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시끄러우니 부업으로 허벌나게 뛰어가서 순대하나 주시구려. 퍽, 퍽, 넉넉히 썰어 갖다 주우.

할아버지

(주모를 찌려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경박해서 참 큰일이야. 쫓쫓쫓. 어찌도 이리 가벼운고. 이 늙은이를 앞에 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주모

(작게 혼잣말로) 요즘 늙은 사람들은 구두쇠라서 참 큰일이야. 배추 그게 비싸면 얼마나 비싸다구. 영감탱이 그 연세에 뭘 얼마나 더 모으려고 그리실까잉.

농부 2

아, 주모 순대 줄 거요, 말거요?

주모

백암 순대로?

농부 2

백암 순대 말고 우리가 먹는 거 봤소?

주모

잠깐만 기다려 보시랑께요 내가 속 넉넉히 채운 걸로 골라 갖다 줄 텐께.

주모는 순대(백암 순대)를 만들기 위해 부업으로 들어간다. 승려로 보이는 사람이 주막으로 들어선다. 김윤후이다.

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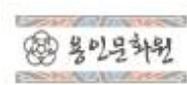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힐끗 뒤를 돌아보며) 요새 우리 먹을 것도 없소 싸게 판 집에나 알아 보슈.

김윤후

아니, 그게 아니라……. 차 한 잔 내 주시오. (손에 권 돈을 꺼내 보이며) 내 돈은 있소.

주모

(삿대질을 하며) 이 양반이 낫술을 자셨나. 여기가 뭘로 보이우. 주막이오, 주막. 산에서 잤 내려오더니 앞 뒤 분간이 안 되나봐잉. 차 마시려거든 싸게 싸게 판 데 알아보씨요.



아이고, 별꼴이야 중이 주막 와서 차를 찾고 지랄이여.

김운후

(주린 배를 움켜잡고) 그럼 파전 하나 내 주시오.

주모 김운후를 훑어본다. 행색이 남루해 보인다.

주모

두 냥이요. 진짜로 돈은 있소?

김운후

(힘없는 목소리로) 돈도 없이 가게엘 들어오겠소. 보여 줬잖소. 여기 있소이다.

김운후 자리를 잡고 앉으려고 하는데 옆에 앉은 술 취한 농부들과 자꾸 몸이 부딪힌다.

농부 2

아이고, 이 사람 보게나. (짜려보며) 자리 저기 많으니까 절로 가서 앉으슈.

농부 1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땡겨 앉게나.

농부 2

(술잔을 쥐고) 아니 저 중이 술 맛 떨어지게, 에이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김운후,

(힐끗 농부들을 쳐다본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다.

여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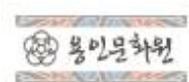
야, 저기 봐봐, 저 아저씨 거진가 봐.

남자아이

진짜 거지야? 저리 가지 말자. 무서워

여자아이

겁쟁이야. 뭐가 무섭냐. (큰소리로) 거지래요, 거지래요!



김윤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순대만 먹는다. 그 때 부엌에서 일하던 처녀가 손님들에게 줄 순대(백암 순대)와 술을 가져온다. 그리고는 마당에 앉는다. 상추(포곡 상추)를 다듬고 오이(백옥 오이)를 깎는다.

제3장 총각과 처녀의 만남

20대 총각이 주막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 비단 옷을 한껏 차려 입은 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부잣집 도련님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막에서 일하는 처녀를 찾기 위해 둘러보지만, 처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농부 3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 총각을 보면서) 어이고 저것 보게, 세상 꼴이 어찌 되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대낮부터 술 쳐마시러 왔소. 보아하니 상투도 안 튼 것 같고만. 양반이면 집에 박혀 글이나 읽을 것이지 낮부터 술이 당키나 한가 말이오. 우리 같은 상놈하고는 다르다매.

농부 1

(손으로 입을 막으며) 췌! 자넨 저기 김 영감댁 막내 도령도 모르나?

농부 3

그게 뭐요?

농부 2

에이그 쫓쫓 그 소식도 모르고 뭐했나그러. 그 있잖우. 천석 지주 김 씨 어르신 댁 작은 아들. 저이가 저쪽 아가씨를 그렇고 그렇게 생각한대, 아주 주막 문턱 닳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거라. 그 빛이나 지난봄쯤에 크게 장 열렸던 적 있잖은가.

농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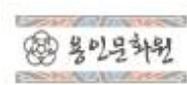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있재, 그 옆 마을서도 오고 그 떠들썩했던 거 말인가잉

농부 2

그래 그거, 그 때 저 김 총각이 저쪽 아그를 보고 반했다네,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탔을 거네, 그래서 한참 혼자서 속을 썩이다 요기엘 찾아오질 않았겠냐 말이지,

농부 3

그래서?



농부 2

김 영감이 그 소문을 듣고 만게라

농부 3

(상을 탁 치며) 어이고, 사단이 났겠구만. 김 영감이 가만 있을 리가 없지. 그 성격에!

농부 2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게, 아예 집에 갇혔재. 딱 니는 개경에 과거보러 가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알긋재, 라고 말해부렀다 안 그러우. 거기다가 우물가 아낙네들도 입방정 떨다 결국 그 댁 마님한테 불려가서 혼썰이 나고. 다들 이제 (나지막한 목소리로) 쉬쉬하고 있소.

농부 1

어이고야 하긴 안 그렇소. 천석짜리 지주가 뭐가 아쉬워서 주막 부엌데기 아그를 며느리로 맞겠냐 말이오. 집안 꼴 우스워지재. 나 같아도 그러겠구만, 암.

농부 2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농부 3

아이고, 거참,

농부 2

저거 훌쭉한 꼴 좀 보시오, 저게 다 상사병 나서 여름 내 꼬박 앓아서 저런 게 아니요잉. 그러니까 어르신이 집 밖에 겨우 나갔다 들어왔다만 하게 시켜준 것이요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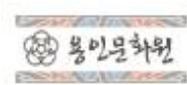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농부 1

(두리번거리며) 자네 좀 작게 말하게. 김 영감님 알면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튀면 우짜려고 그러는겨. 그 양반 성깔 몰라서 그러는가.

농부 2

(술잔을 들고) 에이, 씨. 들으라고 해. 내 입인데 말도 제대로 못하나 말도! (술을 벌컥벌컥 마신다)

총각이 주막 입구를 계속 서성이다가 오이(백옥 오이)를 깎고 있는 처녀를 발견한다. 그러나



처녀는 너무 바빴고 손님들이 많아 총각을 보지를 못 한다. 이 때 주모가 지나간다.

총각

(나지막이)주모! 주모!

주모는 총각을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려고 애쓴다.

총각

(더 크게) 주모! 주모! (아가씨를 발견하고 화색이 도는 얼굴이다) 흠, 주모 있소?

주모

(마지못해 돌아보며) 아이고 도련님 왜 또 오셨어라. (주변을 살피며) 이러다 또 큰 일 난당께. 아이고야 얼른 가시요잉. 우리 집에서 이러시면 혼난다 안그러요.

그러면서도 주모가 처녀에게 눈치를 준다.

주모

(처녀에게 살짝 눈짓을 하며) 아이고야 소금이 떨어졌구만이라, 순대에 소금이 빠지면 간이 안 맞아서 어찌냐

처녀

(영문을 모르고) 아주머니, 소금은 아직 넉넉한데요. 아까 제가 한 바가지 퍼 왔는 걸요.

주모

아가, 그러지 말고 내 말 듣고 저기 소금 집에 좀 다녀오니라. (윙크를 하며) 빨리 가다 넘어지지 말고 찬찬히 갔다오그라 알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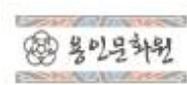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처녀

(알았다는 듯이) 아, 아주머니, 알았어요. 근데 금방 갔다 올게요.

아가씨 눈치를 채고 행주치마에 손을 담고 매무새를 급히 다듬어 밖으로 나간다.

처녀

(반가운 기색이지만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며 총각에게 다가온다.) 어찌려고 또 오셨어요. 어르신 보시면 큰 일 나요



총각

아버진 어제 개경 가셨소. 어머니 몰래 나왔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오.

처녀

(주변을 살피며) 그래도……

총각

(조용하게) 내 요즈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 자네를 만나려면 장사 핑계라도 대야겠소. 장사를 한다고 들락날락하면 이렇게 자네를 맨날 볼 수 있을 거 아니오.

처녀

(깜짝 놀라며) 장사요? 귀하신 도련님께서 장사라니요. 장사는 우리같이 그 날 벌어먹어야 하는 천한 것들이나 하는 거지요, 어르신께서도 아십니까?

총각

아버지 아시면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서경으로 갈까 하오. 신분을 숨기고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하면 되지 않겠소. (간절하게 처녀를 쳐다보며) 이게 우리에게도 더 낫지 않겠소. 구차하게 눈치보고 입단속 해 가며 만나는 것 보아야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서경으로 가서 같이 살자는 말일세. 처음에야 좀 고생을 하겠지만 내 수완이 있으니 곧 땡땡거리며 살게 될 거요.

처녀

(머뭇거리다가 말한다.) 아니 되었어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총각

(처녀 손을 잡는다.) 그렇게 단칼에 자르지 말고, 생각 좀 해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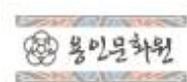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처녀

(손을 뿌리치며) 백번 생각해도 못 가요. 도련님, 마님 보시면 어찌려고 그래요? (거의 울기 직전이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획 돌아서 가버리고 처녀는 총총 다시 주막으로 들어간다.

주모

아가야, 심부를 잘 갔다 왔나.



주모는 처녀를 데리고 뒤뜰로 간다.

주모

(처녀를 붙잡고) 어쩔 그렇게 순대 자르듯 말을 잘라버리나잉. 도련님이 이렇게 매달리면 니 신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하고 따라가야 않겠냐. 김 영감은 김 영감이고 우선 너부터 살아야지 않겠냐.

처녀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주모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래서 못 가는 거면 내가 넉넉히 그 동안 너 일한 거 샅 쳐 줄 텐게 걱정 말그라. 혼수 하는 길로 내가 생각할게, 걱정 말고잉.

처녀

아주머니……

주모

그리고 나한테 “고마워서 뭐 못가네 은혜를 갚아야 하네.” 이따구 소리는 꺼내지도 말그라잉. 우리가 한두 해 알아온 것도 아니고 니 부모 죽고 내가 너 거두어 키우면서 나도 안 외롭고 좋았당께. 고맙고 어찌고 소리 말고 니 잘 살면 된다. 나 맹키로 이렇게 억시게 늙지 말고 도련님 사랑 받으면서 살그라.

처녀

아주머니,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근데 내 집이 여긴데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개경 좋다고 다들 그러지만 서두, 내가 자란 곳이 여긴데 떠나면 맘 편할 거 같지 않네요. (손가락으로 먼 산을 가리키며) 저기 엄마 무덤도 있고, 내가 놀던 자리도 그대로고, 눈에 아른거릴 것 같아서 못 떠나요. 그리고 천덕꾸러기 고아 신세인 저를 거둬주신 거……. 그 고마움을 어떻게 마음으로 갚고 말아요, 전 아주머니랑 여기 있는 게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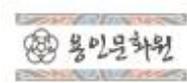
주모

(혀를 차고 고개를 저으며) 쫓쫓, 하이고 아가. 말은 잘 한다만…….

제2막

제1장 김윤후의 등장

김윤후의 불쌍해 보이는 뒷모습을 보고 있던 처녀가 만들고 있던 오이소박이 몇 개와 밥 한



그릇을 바가지에 넣어준다.

김윤후

고맙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처녀

아닙니다. 스님, 별거 아니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한다.)

주모

(뒤에서 다가와 처녀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게 또 맘 약해가지고 퍼 나르지. 아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자꾸 쥐 싸면 어찌자그냐잉. 시방 중놈때기 머리 반들거리는 거 안 보이냐.

김윤후는 주모의 구박에 더욱 소심해진 모습으로 남은 음식을 탁발 바가지에 챙겨 넣고 주막을 나선다. 근처에 더 탁발할 만한 집이 있는지 살핀다.

김윤후

오늘은 아무래도 무리겠어. 탁발은 영 힘들 것 같아. 일단 암자까지 가야겠다. (조금 있으면 질 것 같은 해를 바라보며) 해지기 전까지 가려면 서둘러야겠어.

아이들은 여전히 금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길에서 놀고 있다.

남자아이

죽었다! 너 금 밟았어!

여자아이

내가 언제? 아줌마한테 이를 거다!

남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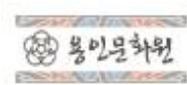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치, 엄마가 이르는 건 나쁜 거겠어. 나쁜 짓 하면 도깨비 몽고군이 잡아간댔다!

여자아이

(아빠 흉내를 내며) 우리 아빠가 그것보다 더 세다!

남자아이

아냐! 우리 아빠가 더 세!



여자아이

우리 아빠는 키가 너희 아빠보다 (팔을 뻗으며) 이만큼 크다! 팔도 이만하고 다리도 이만해!

남자아이

아니야, 우리아빠가 더 커!

여자아이

그럼 우리 아빤 백 배! 뿡뿡!

남자아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야!

(아이들 투닥투닥거리며 마을 안 쪽으로 걸어 들어간다)

시인은 오늘도 마을 입구 바위에 걸터앉아서 하루 종일 한량처럼 햇볕을 쬐고 있다. 꼬깃꼬깃해진 책 한 권과 술병을 손에 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 김윤후가 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지나가려던 차에 시인이 졸다가 깨서 말을 건다.

시인

어이고, 우리 스님 지나가시는 구마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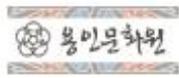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김윤후

안녕하십니까.

시인

안녕하고말고오오, 스님. 내가 안녕하지 않으면 마을에 과로하여 몸져누울 사람이 한둘이겠는가아아. 오늘 탁발 장사는 좀 짹짹해보구만 저기 백암 주막 순대 냄새가 여기까지 솔솔 나는구마아아안. 내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아주 마을 끝 정승한테까지 들리겠구마아아아안. 아 이럴 때 백암 순대 한 입에 옥로주 한 모금 카 마시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겠지이이이이. 가만 보자, 스님은 술도 안하고 고기도 안하시지? 에이그, 무슨 낙에 사시나 몰라. 아이고야 내 창자가 백암 순대를 애타게 그리는구마아아안. 저기 바가지 안에 뭐 들었소?

김윤후



맘씨 좋은 주막 아가씨가 밥하고 오이소박이 조금 주셨습니다.

시인

오이소박이? 아이고 거참 맛나게도 생겼네, 나한테 시주 좀 하시오.

김윤후

얼마든지 드리지요. (오이소박이와 밥을 나눠주며) 여기 있습니다.

시인

(손가락으로 오이소박이 하나를 집어 씹으며) 카, 이 맛이야 이 맛. 상큼한 게 아주 백만 년 묵은 체증이 쓰르륵 내려가는구마아안. 스님 덕분에 요 햇바닥이 호강하네에. 우리 스님 이 물설고 낫선 마을에서 밥 얻으러 다니느라 아주 배때기가 등쪽에 갖다 붙었겠소오오. 내 이 마을 토백이라 영 면구스럽구만. 그래서, 내 스님한테 시주 드릴 음식이나 돈은 없고, 뭘 드리면 되려나. 보자…… 오호라, 화살이 있었지. (주머니에서 활과 화살을 꺼낸다) 스님, 요 화살로 말할 것 같으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외다. 요 화살로 거란 오랑캐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처녀 마음도 잡지. 이거 스니임이 가지시오. 어이고 이게 때깔은 좀 안 나도, 제대로 쏘주기만 한다면 백발백중하는 그 활이라.

김윤후

(손을 저으며) 나 같은 중이 오랑캐를 잡고, 멧돼지도 잡고, 처녀 마음을 잡을 일이 있겠소? 살생할 수 없으니 어르신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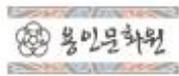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아이 차마 스님 고집 세시네. 받으래두. 이 성의를 거절하시남요. (스님 손목을 잡고 화살을 건네준다.) 어여 가져가시오. 이제 스님 것이라오.

스님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리도 귀한 것을.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김윤후는 다시 길을 가려고 한다. 김윤후가 가거나 말거나 시인은 신경 쓰지도 않고 시를 읊는다.

시인



말 타고 몽고군이 휘휘휘 휘 온다네.
그럼 나는 구름타고 뽕뽕뽕뽕 날아가야지.
올 테면 따라와봐 나는 황야의 무법자.

Act 7

몽고군 등장

저 멀리서 몽고군 열 명 정도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

살리타이

(처인성을 가리키며) 보아라. 저기가 처인성이다. 이 천하의 몽고군이 눈 깜짝할 새면 불태울 수 있는 곳이구나. 하하하. 멍청한 고려 놈들 살고 있는 꼴을 보게. 하하하. 어서 가자. (손가락으로 시인을 가리키며) 저기에 앉아 있는 미친놈은 누구냐?

시인은 바위 위에 앉아 있다. 술 취해 비틀거리다가 운 좋게 화살이 비켜간다.

몽고 군사 1

술 취한 놈인 거 같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시인을 바라보며) 어이고, 배는 남산만한 자가 피하는 건 빠르구만. 저기 저 길에 있는 중놈 좀 보오. 고려인들은 속도 좋아, 저깟 중놈들에게 먹을 것을 잘도 주는구만. 우리 몽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지 (김윤후 곁을 지나간다)

김윤후는 길가에 서 있다가. 몽고군을 보고 움츠러든다.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바가지지를 깨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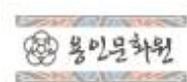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시인

(하품을 짝 하면서) 아이쿠 우리 스님 말대가리에 봉변을 당했구마아안. 괜찮으신가?
(김윤후를 살펴보며) 딱 보니 괜찮네.

시인은 시를 읊는다.

시인

우리스님 바가지가 깨지고 없어지면
우리스님 싸가지는 어디로 가실랑가
스님아 스님아 가지를 먹읍시다아아.



이미 바늘로 몇 번 기운 자국이 있는 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오이소박이와 그나마 적은 양의 음식들도 땅에 뒹군다. 김윤후는 맥이 탁 풀린다.

김윤후

아이고, 이를 어찌나! (한숨을 쉬며) 오늘 저녁을 무얼 먹어야 하나.

몽고 장수 한 명이 날렵해 보이는 말을 타고 뒤를 돌아본다.

몽고 군사 2

(빈정거리듯이 웃는다)저 중놈 꼴 좀 보게나. 시궁창에 뒹군 꼴이 꼭 고려 놈들 같구만. 하하하. 저리고도 고추 달고 태어난 사내라고 하하하!

김윤후 그들을 아주 잠깐 노려보다가 결국 시선을 피하고 옷을 털고 일어나 깨진 바가지 조각을 줍는다.

시인

아이고, 우리 스니이임 큰 일 날 뻔했구만. 에이그으. 아까워라 저 음식들 어찌하나. 나아무 아미타부울 관세으음 보사알.

김윤후는 시인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암자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지워진 금을 다시 그으면서 신나게 뛰어 논다.

여자아이

여기 말발자국 난 데 이만큼 다 내꺼!

남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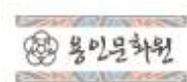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폴짝 뛰면서) 아니야, 여기까지 아까 내 땅이란 말야! 내꺼야! 내가 이겼잖아!

여자아이

아니야! 아까 분명히 여기까지 내가 금 그은 거 맞단 말야!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그럼 여기까지 내꺼 할 거다 뭐!

남자아이

그런 게 어딴냐? 내 거란 말이야. 내가 할 거야, 내 거란 말이야!!!!



남자아이는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자 엉엉 운다. 여자아이는 옆에 머쓱하니 서 있다.

제2장 김윤후의 과거 회상

김윤후, 암자에 돌아와 마루에 걸터앉아 깨진 바가지 조각과 흙 묻은 옷자락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호통 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음향 효과를 사용한다)

아버지 목소리

윤후 네 이놈. 너 그렇게 소심해서 어디 사내노릇 제대로 하겠느냐? (메아리가 들린다.)
소심한 자식. 소심한 자식, 소심한 자식.

작은 형의 환청도 들린다.

작은 형

어이고 야, 책벌레. 너는 그냥 저기 사월이랑 같이 밥상 차리고 바느질 하면 딱이겠구나.
수염은 나고 있긴 하느냐? 사내놈이 저렇게 비실비실 약해서야. 어디 가서 내 동생이란
말 하지 말아라. 말만 들어도 창피해서 거 참.

김윤후

(귀를 막으며 괴롭게 혼잣말하며) 그만, 그만, 제발 그만해!

김윤후가 과거를 회상한다. 김윤후는 글 읽는 병약한 어린아이이다. 방 밖 마당에서는 형들이 검술을 연습하는 커다란 기합 소리와 아버지의 훈수 두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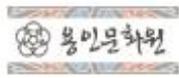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김윤후의 형들

(검을 쥐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버지.

옳지. 잘 하고 있느니라. 애들아, 검을 두 손으로 똑바로 지고 정신을 더 집중하거라.
자고로 검이 가는 방향과 마음의 방향과 눈이 가는 방향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지, 자
다시 반복해보거라! 무관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김윤후도 무술 연습을 한다. 그래서 더욱 책장을 넘기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과 형들의
건강한 모습이 비교되어 속이 상한다. 김윤후는 책을 덮고 마당으로 나와 형들처럼 목검을
든다.



김운후의 형

아이고, 우리 책벌레 동생님 나왔냐? 야 너 그렇게 허여멀건 한 행색을 하고 검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당키나 하나? (검을 뺏으며) 목검 드는 거 집어 치우고 들어가서 책이나 읽어.

아버지

어허, 동생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운후도 검 잡아보면 잘 할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운후 너 마침 잘 나왔느니라. 이리 와서 형하고 한번 연습해보거라. 형이 네가 늘 글을 읽고 있으니 검술 솜씨가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김운후

(하지만 자신이 없다.) 네 아버지…….

하지만 심술궂은 작은형이 공격하자 한 방에 그만 쓰러져서 손바닥과 무릎이 까지고 만다.

아버지

자,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지 않겠느냐, 매일같이 나와서 연습하면 너의 실력도 나아질 것이니라.

김운후

아니옵니다 아버지님. 저는 어지러워 방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쫓쫓, 사내놈이 저렇게 병약해서야 어디다 쓴단 말이냐. (등을 돌리며) 무신 집안의 피는 다 어디로 갔는지. 허허.

김운후는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까진 손바닥을 보면서 딱딱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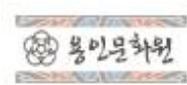
제3막

제1장 주막이 불타다

주막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다. 이 때 관료가 허겁지겁 뛰어온다.

관료

여보시게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네, 방금 저쪽에서 봉화가 올랐다네!



농부들

봉화라니요? 전쟁날 때 켜는 그 봉화 말씀이십니까 나오리?

관료

아이고, 이 사람들 답답하기는! 애기 헛들은 쟤가? 몽고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애기 아닌가! 어서 다들 집에 들어가서 준비 단단히 해야겠네! (포졸들을 보며) 자네들도 얼른 관청으로 돌아가서 무기 간수 잘 하고 갑옷 챙겨 입고 와야 할 거 아닌가! 어서 어서 서둘러! 말을 달려 올 테니 오랑캐 놈들 금세 처인성까지 도착할 것이 분명하네!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관료는 장터에 사람들을 모은다.

관료

이보시오들, 잘 들으시게. 곧 몽고 군대가 여기까지 쳐들어 올 것 같소.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 조그만 부곡이 어떻게 몽고 군대를 당해내겠는가 말일세. 개경에서 지원군이 와도 이들은 걸릴 터. 그 전에 여기는 불바다가 되고 말 거요.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다. 여인네들 울먹거리기 시작하고 남자들 착잡한 표정이다.

농부 1

아이고, 어찌면 좋겠습니까요잉.

할아버지

전쟁이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당최 들리지가 않아.
(농부2에게) 몽고군이 왔대? 왔냐고?

농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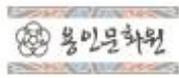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짜증스럽게 큰 소리로) 우리 마을까지 왔대요! 왔대요! 영감님도 도망가세요!

관료

어찌기는, 우리가 그 큰 군대에 맞설 수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서 피난을 가야지.
(재촉하면서) 다들 어서 집에 가서 짐들 챙기고 나오시오.

농부 3

아이고 나오리, 이놈들 집은 여기입니다요. 원네들이 가봤자 얼마나 멀리가겠습니까요.
집도 밭도 없는데 어디로 떠나란 말씀이십니까요.



농부 1

그러게 말이요잉. 나으리, 우리 다 죽는 겁니까요. 말로 쫓아오면 그 전에 다 죽는 거 아십니까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저 벼가 다 익어서 추수까지 겨우 해서 먹고 살만한데 저길 어찌까나. 아이고 아이고 이럴 바엔 죽고 말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모두 혼란에 빠진다. 이 때 몽고 군대의 불화살이 마을로 하나 둘씩 날아온다.

살리타이

태워라! 마을을 태워라! 마을 놈들이 몰려 있을 것 같은 곳은 모조리 태워버려라! 관청과 주막을 태워버려! 고려 놈들은 무지막지 하게 세상물정 모르고 마셔대는구나. 하하하 오늘이 너희들 모두의 제삿날이겠구나.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들은 모두 죽여라!

몽고 군사 1

몽이 근질근질했는데 잘 됐다, 이 놈들 내 화살 좀 맞아봐라! (활을 당긴다)

몽고 군사 2

(휘하의 병졸들에게) 애들아 오늘 여기 싹 쓸어버리고 포식하자! 가자!

날아오는 화살들을 맞아 주막이 불에 타자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허겁지겁 도망을 간다.

농부 3

(뛰어가며) 불이야! 불이야!

농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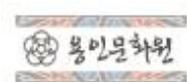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불화살이다! 몽고 군대가 쳐들어온다! 도망가자! 불이야 불!

주막이 타는 걸 보면서 주모와 처녀가 울음을 터트린다.

주모

(엉엉 울면서) 아이고 이를 우째 쓰꺼나. 아이고! 아이고!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다른 사람들을 쳐다본다.) 아무도 없소? 여기 불 좀 끄게 도와주시오! 도와주쇼! 아이고 우리 주막이 다 타네. 안 돼! 도와주시오! 아이고오!

주모는 결국 다리의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만다. 아가씨가 옆에서 부축한다.



처녀

(울면서) 안돼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막이 다 타고 있다구요! (주저앉은 주모 곁으로 불붙은 나뭇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안돼요, 아주머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우리 얼른 피해요, 네? 일어나요. 다친다고요!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둘이 오염하는 것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물을 퍼와서 불을 끈다.

제2장 시인의 죽음과 김윤후의 변화

사람들이 모두 우왕좌왕하는 성 안에서도 시인은 천천히 손에 술병을 들고 걸어온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한 손에는 책을 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떠밀리지만 어쨌든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술 취한 시인이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 되어 성곽에 걸터앉아 시를 읊기 시작한다.

시인

(트로트 곡조로) 불타는 처자마음, 불타는 내 마음, 불타는 내 사랑이여!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같잖은 내용의 시를 읊는 시인이 어이없다, 동네가 불바다가 되어 초상집 분위기인데 혼자만 그렇지 않은 그를 보고 주변에 몰려가 시비를 건다.

농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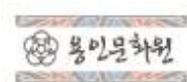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아이고 이 사람아. 다 죽게 생겼지 않소, 어쩌면 좋소. 베짖이 맵기로 노래 부르는 건 날 평안할 때 하고 지금은 불이 뚝뚝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소, 어떻게 생각 좀 해보시란 말이오.

시인

어차피 왔다 가는 거 죽으면 죽는 거 아닌가아아……。 그렇게 삶에 미련두지 말어, 내일 눈 뜨면 다른 데 가있으면 얼마나 또 신나지 않겠냐 말일세에에에에

농부 3

아이고 어차피 왔다 가는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요. 신나는 거야 우리는 모르오, 여기나 거기나 별 다를 거 없지 않겠소. 우리는 어쩔 줄 모르겠으니 배운 양반이 어떻게 좀 해보시랑게요. 이거 다 죽게 생기지 않았소. 우리 애껏 농사지은 거 어쩌란 말이지. 여기 부곡사람들 다 죽으면 그 쪽이야 높으셔서 평생 놀고먹었으니 별 여한 없이 극락 가겠지만 우리 천것들은 고생만 썩빠지게 하고 개죽음 하는 거지라. 안 그렇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농부 2

(시인의 떡살을 잡으며) 시인이고 나발이고 저리 꺼지란 말이여!

김윤후가 달려가서 싸움을 막으려고 한다.

김윤후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이보게 다들 진정하시오. 조금만 진정하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지 이리고들 싸우고 있으면 다 죽지 않겠소.

농부 2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시방, 이 놈 지껄이는 꼴을 보시오. 내 역정 안 내게 생겼나, 안 생겼나.

농부 3

배운 놈들이 말만 많아서야 원. (혀를 찬다) 주모가 저리 우는데 사람이 저래야 쓰졌는가.

농부 1

(몽고 군대를 쳐다보면서) 안 돼! 저놈들이나 이런 양반들이나 다 똑같소! 우리는 어디 사나 개죽음하기 마찬가지지!

주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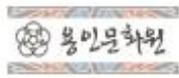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뭐야, 시방 우리 다 죽는겨? (바닥에 주저앉는다) 나는 못 죽어. 못 죽는구만요. 이제 돈도 좀 모으고 어깨 좀 펴고 살아볼까 했는디. 술이나 파는 친한 것 소리도 그만 듣고. (벌떡 일어난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죽긴 왜 죽어. 다들 뭐 하는 겨?

순간 화살이 날아온다. 김윤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시인의 어깨에 가서 박힌다. 저 멀리서 달려온 몽고 군대가 쏜 화살이다. 몽고 군대가 말을 타고 뿌연 연기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다.

김윤후

(쓰러진 시인을 흔들며)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으리, 나으리! 눈을 떠 보란 말이오.

김윤후가 시인을 구해보려 하지만 날아드는 화살에 속수무책이다. 우선 겁이 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시인을 두고 몸을 피한다. 한참 후 잠깐 화살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다시 시인을 구해주려 다가온다. 그러나 이미 시인은 여러 군데 화살을 더 맞고 숨이 끊어졌다.



김윤후

이,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 나오리, 나오리! 아! 내가 늦었구나! 내가 겁이 많아 나오리를 구하지 못하고 죽게 했구나. (시인의 몸에서 화살을 뽑으며) 나오리, 나오리! (시신을 흔들며) 일어나시오! 일어나란 말이야! 이대로는 보낼 수 없소!

김윤후는 시인을 평평한 데 잘 누어놓고 한참 오열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김윤후

여러분, 여기들 좀 보시오!! 시인 나오리가 죽었소, 그 뿐만 아니요, 여러분 이웃들이 허다하게 죽고 다치고 있소.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저 몽고 군대 말발굽에 우리가 언제까지 짓밟혀야 합니까? 우리 마을이 다 불타도 됩니까? 목숨하나 살겠다고 도망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와봤자 집도 밭도 없는데. 이 놈들은 우리가 도망치면 언젠가 또 쳐들어 올 것입니다, 이대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답이 없다. 다들 너무 겁이 나서 기색이다.

농부 1

(등을 돌리며) 아, 산 사람은 살아야제.

농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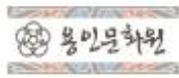
(삿대질을 하며)스님이 뭘데 큰소리를 치는 거여? 우리가 돼지면 우리 새끼들은 누가 먹여 살려. (김윤후 바로 앞에 다가와서 고개를 내밀면서 말한다.) 책임 질거우? 책임 질거우?

그러자 주모가 큰 소리로 나선다.

주모

(사내들을 가리키며) 아니 사내대장부들이 어찌 다 그 모양인가? 남자라면서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여기서 우리가 도망가뚱면 우리 주막처럼 당신네들 집도 다 불탈 게 뻔한데 시방 도망간다고 될 일이당가? 도망가면 갈 데나 있는겨?

처녀



(울면서)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곳이 있어도 못 가요. 우리 아주머니 있고, 우리 어머니 무덤 있고..... (잠시 망설이며 총각을 생각한다.) 저는 여기에 남겠어요.

총각

(처녀 손을 잡고) 우리 내일 도망가기로 했잖소! 무슨 말이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린다.

처녀

(총각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린다) 저는 안 간다고요! 못 가요! 도련님도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요! 저는 못 가요. (김윤후와 주모 쪽으로 가서 선다)

총각

(쫓아와서)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여기에 남겠네. 여기가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인데 (생각에 잠긴다) 내가 지켜야지. 무엇보다 내가 자네를 지켜야지. 자네 없이 개경에 가봤자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돈을 얼마 벌면 어디에 쓸 것이며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게 맛이 좋겠는가? 내 살아도 자네와 같이 살고 죽어도 자네와 같이 죽겠네. (다시 처녀의 손을 잡는다)

농부1

(눈물을 흘리며) 젊은 사람들이 참 딱하구만. 여보게 시방, 우리도 여기서 땅 파 먹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여. 안그라?

농부 2

(화를 내며) 없긴 왜 없어! 가자고! 다 죽게 생겼는데 멀리 생각해 뭐하나? 목숨부터 살리고 보세나, 난 가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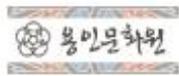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농부 3

(농부 2를 붙잡고) 자네 역정만 내지 말고 생각해봅세. 우리가 싹 가면 여기는 누가 지키나. 우리가 가면 마을이 죄다 싹 다 타 버리면 우리만 살면 무슨 소용인 거? 자네 땅이 자네 목숨이라고 허구한 날 말하지 않았는가.

농부 1

그러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여기에 남겠네.

농부 3



나도 여기에 남겠네.

농부 2

아 참 내. 다들 왜 그러요. (농부 1, 농부 3의 눈치를 보다가) 알았어, 알았어. 나도 여기에 남으며 될 거 아니여.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농부2를 쳐다본다.) 아이고, 내 참말로 여기에 남고 싶어서 남는 거래니까네. 아주 내가 남고 싶어서 마음이 짝 죽겠네! 아이고 밭이 안 떨어져 이를 어찌카겠는가잉! 나 남겠소!

농부 1, 3이 킁킁 웃는다.

할아버지

(벽에 앉아 화살을 피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며) 이 늙은이도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나도 남겠어.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들 묘가 다 있는 처인성을 내 어찌 떠나겠어. 늙어서 힘도 없는데. 이 마을만 구할 수 있다면 내 돈을 다 쓰겠어. 천 냥이든 천석이든 뭐라도 해야지. (사람들을 쳐다보며) 뭐가 필요한가 자네들?

김윤후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너무 없어요.

할아버지가 잔뜩 자루에 무기며 농기구를 담아가지고 온다.

할아버지

(자루를 바닥에 던지며) 어차피 죽기를 각오한 바면 이 참에 화끈하게 싸워봐. 내 이래봐도 소싯적에 거란 오랑캐 놈들 백 명이나 물리쳤지. 이 망할 놈의 몽고 오랑캐 놈들 아직까진 식은 죽 먹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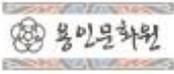
주모

허이구야, 말씀은 고맙씨요잉, 근데 이 영감 참 웃기는구마잉. 그래 꾸부정 해가지고 활이나 제대로 쥐겠는겨?

김윤후

어르신, 아직은 저희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루를 열고) 여러분 여기 와서 무기 하나씩 챙겨가시오. 목수들은 도끼 챙기고, 농부들은 낫 챙기시오. 손에 익은 무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제3장 전쟁



농부들이 전장으로 나갈 채비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한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다.

농부 3

기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하나씩 집으세요잉. 처인부곡에 사지 멀쩡한 장정 숨씨를 보여주겠구만이라. 내가 힘 안 쓰면 누가 쓰겠는가!

농부 2

어이고, 장정? 자양정? 나아말로 처인 부곡 제일가는 장정이어, 자네보다 백배는 힘이 세지. 내 몽고놈 열 명도 더 던져버린당께, 가세!

살리타이

저 놈들이 미쳤구나! 성 위로 머리 드는 저놈들을 모조리 쫓 죽여라! 불화살을 장전하고 칼을 빼라! 어서 죽여라!!

사람들이 몽고 군대가 쏘는 별떼 같은 화살을 맞고 쓰러진다.

농부1

(맞은 화살을 움켜잡고 쓰러진다) 으윽!

농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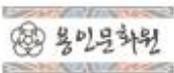
(놀라서) 여보게! 여보게! 자네 왜 이래! 정신 차려! 자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데! 자네 부인과 자식새끼들은 뭐 먹고 살라고! 처인 부곡에 자네가 없으면 내 무슨 재미로 술을 마시나? 일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갑자기 화살을 맞는다) 아! (쓰러지며) 으으윽!

농부 3

아니, 다 죽으면 어쩐다냐. 엄살 그만 떨고 얼른 일어나세들! (돌덩이를 들어서 성 밖으로 던지다 역시 화살을 맞는다)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아이고, 난 안 죽어. 안 죽는 당께! 아이고 삼월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 남은 사람들은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겁이 나는 건 감출 수 없지만 총각과 김윤후는 더욱 더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는다.

김윤후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며) 죽은 사람들은 한 걸음으로 옮겨주시오, 다들 침착하시오, 동요하지 마시오. 우선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부터 살 방법을 찾아야 하오.

총각

이러다가는 결국 성에 기여들어오고들 말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성벽에 가까이 붙어서 화살을 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놈들을 상대하려면 젊은이가 나서야 싸움이 되지 않겠소. 내가 이 처인 부곡 제일가는 유지 김 씨네 아들인데 마땅히 할 일을 해야지. 가서 고려 남자의 힘을 보여주지.

처녀

(총각의 앞을 막으며) 도련님, 안 돼요! 영감님이 아시면 땅을 치세요. 마님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도련님 이러다 잘못되시면 이년은 어찌 살라고. (주저앉아 총각의 다리를 붙들고) 가지 마세요. 안돼요! 못 가요!

총각

(처녀를 일으켜 세운 뒤 처녀의 손을 잡고) 걱정 마시오. 내 이 힘으로 몽고 군대를 아작 내고 돌아오지. 우린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주모

(총각의 앞을 막으며) 도련님,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않소잉, 이 아그를 두고 어디 가시오. 도련님이 없으면 우리 지수는 어떡하고 김 영감님이랑 마님은 또 어찌 산데요. 이러지 마시오잉, 이러다 큰 일 납니다.

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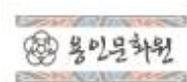
어허, 주모, 나를 믿으시오. 내 이래뵈두 소싯적에 좀 날렀다오. 걱정 말라 하지 않았소. (처녀의 손을 꼭 잡는다) 내 금세 다녀옴세. 알았지? 저 놈들 물러가고 나면 우리 꽃 피는 봄에 식 올립시다, 아버지가 뭐라 하던 나는 개의치 않겠소!

주모

(급하게 다시 한 번 가로 막으며) 아니 이 양반이 미쳤소잉. 야, 이놈아, 가지말래도!

그러나 총각은 맨 앞으로 뛰어든다. 돌덩이를 들고 성곽 가까이 선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진다. 결국 화살 몇 방에 총각까지 쓰러진다. 몽고 군대의 함성이 들린다.

농부3



아이고! 이를 어찌나. 총각이 활에 맞았다! (고개를 떨어뜨린다)

멀리 있던 처녀가 성곽 가까이로 뛰어온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잡아끌지만 소용이 없다.

처녀

안 돼! 안 돼! (대성통곡을 한다.) 도련님 눈 떠 보시오! 나를 두고 죽으면 안 됩니다!
꽃 피는 봄에 식 올리기로 약조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지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계속 화살은 날아들어도 꿈쩍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처녀를 겨우 떼어낸다)

제4장 김윤후와 활약

김윤후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에 빠진다.

김윤후

(독백) 아 정말 끔찍할 전쟁이로고…… 이대로는 당하기만 하겠구나.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윤후의 옷자락에도 피가 잔뜩 묻었고, 화살 스친 자국들이 있다.

김윤후

그래, 시인이 준 화살이 있다! (주머니에서 화살을 꺼내며) 그래 이 화살을 믿어보자.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인이여. 부처님이여! (활을 쏜다)

김윤후가 성곽에 올라선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우두머리 살리타이를 향해서 화살을 쏜다.
화살이 날아가 살리타이에게 명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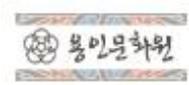
몽고 군사 1

(다급하게) 장군님! 장군님!

살리타이는 눈을 마주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살리타이가 말에서 고꾸라지고 그 주변의
병졸들이 모두 활 쏘던 일을 멈추고 경악한다. 그리고는 살리타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흩어지면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한다.

몽고 군사 2

아니, 만만한 성인줄 알았는데…… 고려 놈들은 중도 저렇게 활을 잘 쏜다 말인가!
아니, 왜 저놈들은 도망을 안 가지? 저것들이 미쳤나!



몽고 군사 1

도저히 안 되겠다. 퇴각이야 퇴각. (몸을 돌리며)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리 강하지.
퇴각이야. 무조건 퇴각하라!

그리고 그 틈을 타 다른 농부들이 열심히 화살을 더 쏘고 돌을 던진다.

김윤후

(환호하며) 이제 됐다! 살리타이가 죽었다! 몽고 군대가 물러간다!

농부3

뭘시라요, 스님? 시방 그러면 우리가 이긴 것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이긴 겁니까잉?

주모

아따 이 사람 의심 참 많네. 아 이겼다잖아 이겼당께

농부 3

(표정이 밝아지며) 스님 진짜 맞지요? 이긴 거 맞죠?

김윤후

우리가 이긴 것이고, 처인성이 이긴 것이고 처인 부곡사람들이 이긴 것이고, 고려가
이긴 것이지요.(활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

사람들

와 이겼다! (만세를 부르며)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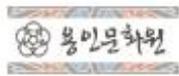
사람들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다, 죽은 사람들을 끌어안은 사람들도 있다.

제4막

제1장 어명

관료가 말을 타고 김윤후에게 다가온다. 말에서 내린다.

관료



(김윤후 앞에 서서 문서를 읽으면서) 김윤후는 들으라. 그대는 몽고 오랑캐에게 맞서 고려를 구해주었다. 임금님은 그대를 어여삐 여겨 그대를 상장군에 임명하노라. 그대는 지금 앞으로 나와 어명을 받들라.

김윤후

(무릎을 꿇고 인사하며) 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뭐든지 하지요. 부처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지만 나으리……. 저는 처인성을 지키겠습니다.

주모

(깜짝 놀라며) 아니 스님. 왜 이러시나. 임금님이 부르시는데 안 가신다고. (놀라며) 처인성이 뭐라고. 상장군이면 엄청 높은 건데.

김윤후

(손사래를 치며) 아닙니다, 아주머니. 처인성을 지키는 게 저에게 제일 큰일입니다. 임금님도 이해해 주실 테지요. (꾸벅 인사를 한다) 걱정 마세요.

제2장 새로운 출발

아이들이 화살을 피해 마루 밑 깊숙이 숨어 있다가 다시 슬금슬금 나온다. 돌맹이를 쥐고 땅따먹기 그림을 그린다. 여자아이가 옷에 묻은 흙을 털다.

여자아이

이제 놀아도 되나봐! 금 빨리 그어.

남자아이

다 그었다! 자 내가 시작한다? (작은 목소리로) 일이 삼 사오!

여자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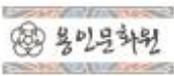
에게게, 너 죽었다. 너 금 밟았어! 나야 나.

남자아이

(큰 목소리로) 알았어. 그럼 니가 얼른해!

처녀는 불타고 남은 주막 앞에 주저앉아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

처녀



그래. 전쟁이 끝났구나…… 도련님은 가셨구나…… 이렇게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살아남았구나.

아주머니와 이 아이들과 함께 처인 부곡을 가꿔야겠다. (벌떡 일어나며) 도련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은 내게 전쟁의 폐허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아름다운 곳이야. (눈물을 훔치고 주먹을 움켜쥐다) 아주머니, (주모를 쳐다보며) 우리 다시 오이도 팔고, 순대도 팔아요. 그리고 이젠 스님 드릴 차도 팔아야지. 일단 주막 수리하고. (팔을 걷으며) 청소부터 해야겠다.

주모

내 이래봬도 무일푼에서 시작한 사람이야. 아가, 후딱 청소부터 하자. (처녀가 아이들을 쳐다보자) 거기 그만보고 얼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여. 자 이번엔 진짜 소금부터 사와라. 어서!

처녀

(밝은 표정으로) 네 아주머니.

아이들은 처녀의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놀이에 집중한다.

남자아이

(폴짝폴짝 뛰며) 일이삼사오!

여자아이

(큰 소리로) 죽었다. 나다. (돌을 던지고 뛰며) 일이삼사오! 앓 죽었잖아. 에이 씨!

아이들이 뛰면서 무대 뒤로 퇴장한다. 처녀가 아이들을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끝-